

성공하는 기업의 비즈니스 어드바이저

2024 MARCH Vol.254

# CHANNEL

따뜻한 봄내음,  
웃음 꽃이 활짝!

삼정 KPMG



# 봄이 왔나 봄! 행복 가득한 봄날을 응원합니다

새로운 계절 봄이 우리 곁에 왔습니다.  
봄은 초록빛 새싹이 돋아나고, 활짝 흐드러진 꽃,  
그리고 따스한 햇살이 내리 쬐는 기분 좋은 계절이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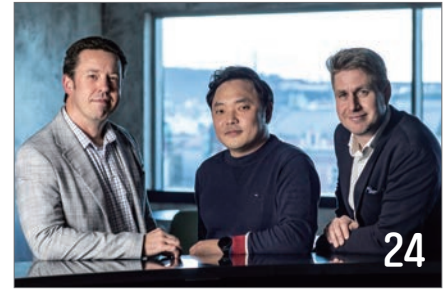
영국의 철학자 버나드 윌리엄스는 “봄은 희망의 계절이다”라고,  
배우 오드리 헵번은 “꽃이 피는 것을 보면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삼정KPMG 가족 여러분들도 아름다운 계절 봄이 주는  
긍정의 힘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가득 채운  
봄날 보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행복 가득한 봄날을 응원합니다!

# CONTENTS

Vol  
**254**



## 건강한 성장

### 04 Emerging Trends

글로벌 경영진이 바라본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와 도전 과제는?

### 06 Market Reader

위기를 딛고 기지개 켜는 호텔산업,  
어떤 성장 전략 필요할까?

### 08 Team Story

감사위원회의 든든한 동반자!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udit Committee Institute)

### 10 Client+

웹3 비즈니스 위한 최적의 파트너,  
쟁글(Xangle)

### 12 Expert's Advice

간편결제 무한경쟁, 페이먼트 대표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

### 14 알쓸사전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 행복한 일터

### 16 55주년 특집 I

KPMG Korea 55주년!  
우리가 걸어온 길! 찬란한 미래를 향해

### 20 55주년 특집 II

삼성신문에  
'오오주년(연) 4행사'를 부탁해

### 22 삼성동호회자랑

짜릿한 모험을 즐기는  
스카이다이빙

### 24 세계가 열린다

외국인 투자에 적극적인 나라, 체코

## 26 이동규의 두줄칼럼

목표와 방향

## 28 心 Care

갈등을 다룰 용기가 있는 회피를 위해

## 30 Samjong News

신임 감사부문 대표에 변영훈 부대표 임명 外



QR코드를 통해 삼성KPMG의  
생생한 정보를 만나보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삼성KPMG 홈페이지로 접속할 수 있습니다.

발행처 삼성KPMG

기획·편집 홍보팀(02-2112-7567)

디자인 네오메디아(02-512-1666)

인쇄 드림인쇄(02-464-6161)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2

강남파이낸스센터 27층 (우편번호)06236

홈페이지 [home.kpmg/kr/ko/home.html](http://home.kpmg/kr/ko/home.html)



# 글로벌 경영진이 바라본 자동차 산업의 트렌드와 도전 과제는?

KPMG는 전 세계 30개국 1,041명의 자동차 및 관련 산업 경영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수행하고, 이를 토대로 글로벌 자동차 시장 트렌드 보고서인 'KPMG 글로벌 자동차 산업 동향 보고서 (24th Global Automotive Executive Survey)'를 발간했다. 본 설문조사를 통해 글로벌 자동차 산업은 불확실성이 보다 대두되는 시기임이 드러난 가운데, 전기차의 발전, 자율주행 기술 고도화, 더욱 역동적이고 생생한 고객 경험 요구 증대 등으로부터 촉발된 다양한 비즈니스 기회에 직면한 것을 재확인했다.



## 글로벌 경영진 34% '5년간 자동차 산업 성장'... 수익성은 예상 대비 저조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5년간 자동차 산업이 높은 수익을 내며 성장할 것이라 확신하는 글로벌 경영진의 비중은 2022년 41%에서 2023년 34%로 감소했다. 일본의 경우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향후 5년간 수익성 높게 성장할 것임을 '매우 확신'한다고 대답한 비율이 10%에 그쳤으며, 이는 2022년 32%에서 22%p나 떨어진 수치다. 서유럽과 미국 시장 내 임원진도 성장에 대한 확신이 각각 24%, 43%로, 2022년 대비 각각 7%p, 5%p 감소했다.

다만, 중국의 자동차 산업 임원진 중 36%는 자국의 자동차 산업이 향후 5년간 높은 수익을 내며 성장할 것이라고 '매우 확신'하고

있는데, 이 수치는 작년 28% 대비 8%p 증가했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연간 자동차 판매 목표량을 증가시키며 특히 신에너지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내수 진작 정책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원가경쟁력을 갖춘 중국산 전기차가 유럽 시장 등에 수출되면서 중국 자동차 산업의 수익성이 증가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 전기차로의 전환, 보다 현실적 시각 대두

2년 전, 2030년 국가별 신차 판매량에서 전기차가 차지할 비중에 대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 경영진의 응답은 20~80%까지 천차만별이던 결과와 달리,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동일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범위가 상당히 좁혀지면서 전기차 시장 점유율에 대해 보다 성숙하고 현실적인 시각이 대두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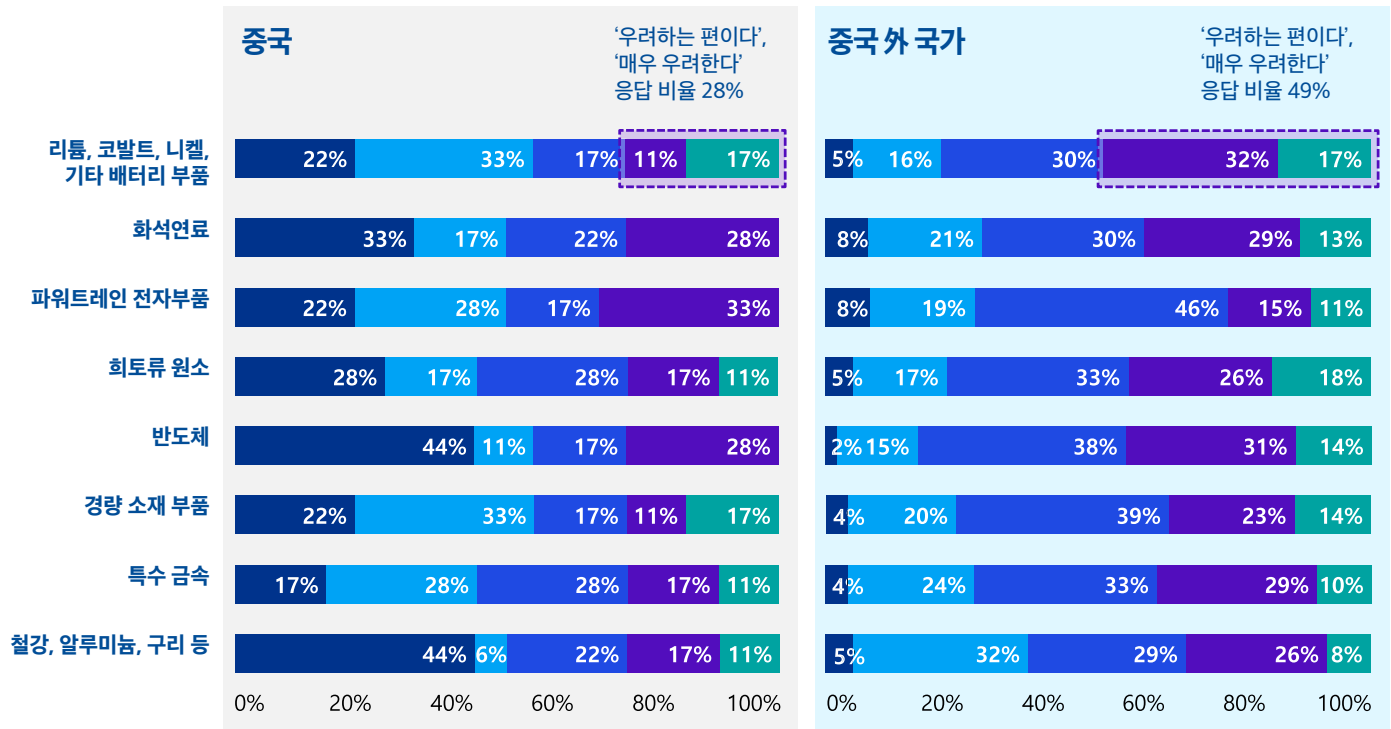
다. 2030년 신차 판매량에서 전기차 점유율에 대해 중국은 36%로 가장 높게 예측됐으며, 미국, 일본, 서유럽은 30~33% 수준으로 중국 뒤를 이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전기차 전환 시점 측면에서도 구매 보조금 및 충전 인프라 구축 수준에 따라 기존 예상보다 더 지연될 수 있다고 글로벌 자동차 산업 경영진은 응답했다.

## 중국 외 국가는 원자재 및 부품 공급 우려가 높은 편

중국과 중국 외 국가에서 원자재 및 부품 공급 안정성에 대해 우려하는 분야도 상이하게 나타났다. 중국을 제외한 글로벌 자동차 산업 경영진의 40% 이상이 화석연료, 희토류 원소, 반도체 등 원자재 및 부품 공급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우려하는 편'



## 향후 5년간 다음의 원자재 및 부품 공급 안정성에 대하여 얼마나 우려하는가?<sup>1)</sup>



Source: 24<sup>th</sup> Annual Global Automotive Executive Survey, KPMG International  
 Note 1): 일부 그래프에서 소수점 반올림으로 인해 결과의 합이 100%가 아닐 수 있음

■ 전혀 우려하지 않는다 ■ 별로 우려하지 않는다 ■ 보통이다 ■ 우려하는 편이다 ■ 매우 우려한다

이라고 답했다. 특히 리튬을 포함해 코발트, 니켈, 기타 배터리 부품 공급에 대해 우려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49%로 집계되며, 가장 우려되는 분야로 드러났다. 반면 중국 경영진은 리튬, 코발트, 니켈, 기타 배터리 부품 공급에 대해 '매우 우려'하거나 '우려하는 편'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28%로 중국 외 국가 대비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이는 중국이 원자재를 보유하며 타 국가에 공급하는 역할을 한 데 기인한다.

###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분야의 인재 발굴 중요

2023년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는 다양한 첨단 제조 기술(인공지능, 디지털 트윈 등)이 주목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첨단 제조 기술에 대한 준비도가 '매우 높은

수준' 또는 '높은 수준'이라고 응답한 자동차 산업의 경영진 비중은 2022년 대비 약 23%p 하락했다. 최근 산업을 막론하고 다수 기업이 생성형 AI(Generative AI) 도입을 서두르는 가운데, 자동차 산업 역시 첨단 기술 분야를 도입하기 위해 향후 수년 동안 자사의 비즈니스에서 인공지능 및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엔지니어가 가장 중요해질 것이라고 응답한 경영진 비중은 25%로 1위를 차지했다.

글로벌 자동차 산업에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뛰어난 제품은 물론이고, 자사 비즈니스가 세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목표에 도달하려면, 바로 이 순간 기업이 직면한 도전 과제를 극복해야만 한다. 국내 기업의 경영진 역시 올바른 의

사결정으로 산적해 있는 도전 과제를 극복하여 기업의 미래를 성공적으로 만들어 가길 기대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CONTACT US



IM3본부 김재연 전문  
 Tel. 02-2112-0206  
 E-mail. jaeyeonkim@kr.kpmg.com

경제연구원 정미주 책임연구원  
 Tel. 02-2112-4802  
 E-mail. mijujung@kr.kpmg.com

# 위기를 딛고 기지개 켜는 호텔산업, 어떤 성장 전략 필요할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국내 호텔산업은 숙박여행 감소로 인한 매출액 급감, 영업이익 적자 등 큰 타격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해 엔데믹 선언(코로나19 심각경보 해제), 국내외 입국 제한 해제에 따라 적극적인 국제선 증편이 이뤄지며, 숙박여행 또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 중이다. 다시금 성장 기회를 맞이한 지금, 호텔업계는 트렌드를 읽고 효율적으로 리스크를 관리하여, 전략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



## 호텔산업, 'MZ세대·리테일·친환경' 고려해야

호텔산업은 관광 수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소셜 미디어 활용,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등 트렌드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요구되는 산업이다. 이에 호텔업계는 MZ세대·리테일·친환경 서비스 등 빠르게 변화하는 소비 트렌드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MZ세대의 소비 트렌드 중 하나인 '인스타그램머블(Instagrammable)'은 호텔 건축 설계 및 서비스의 시각적 측면을 강조하는 비주얼 마케팅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인증샷'으로 대표되는 '포토프레스(Photo+Express)'가 '가심비' 트렌드와 결합되어, 반나절 동안 호텔의 부대시설을 이용하는 등 다양한 옵션의 '반캉스' 패키지가 등장했다. 호텔은 객실 이용 시간, 부대시설 이용 여부 등 다양한 옵션을 제공하며, 인플

레이션 등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된 상황에서 가격 다변화 전략을 취하고 있다.

그동안 호텔은 오프라인 중심의 공간 서비스 제공 사업 위주로 진행됐으나, 코로나 기간 객실 서비스 수요가 감소했다. 이에 국내 주요 호텔을 중심으로 PB(자체브랜드) 상품을 개발하고, 온라인 판매 채널을 확대하는 등 리테일 사업을 전략적으로 확장하고 있다.

또한 2023년 2월 자원재활용법이 개정돼 2024년 3월부터 호텔 내 소용량 어메니티가 일회용품 규제 대상에 적용된다. 지난 2021년부터 특급호텔은 친환경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대용량 디스펜서를 도입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여왔으나, 한국소비자원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약 65%의 소비자가 호텔의 친환경 서비스에 아직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결국 호텔 경영자는 ESG

경영 전략을 수립할 때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요구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

## 호텔 운영·객실 공급·디지털 전환 등 비즈니스 트렌드

호텔산업은 관련 소비 트렌드뿐만 아니라, 재무 부담 확대에 대응하는 등 운영 측면에서의 비즈니스 트렌드를 고려해야 한다. 특히 공간 활용을 기반으로 하는 산업으로, 리스 부채에 의한 재무부담 변동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토지 매입 및 호텔 건설 등 직접 투자 방식은 대규모 투자로 인한 사업 리스크, 우발채무 부담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국내 주요 호텔업체는 신규 사업 확장 시 자산을 경량화하고, 재무 건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위탁 운영 방식 모델을 확대하고 있다. 또한, 상표 사용권, 경영 노하우 등 무형자산으로 추가적인 수익성까지 확보할 것으로 전망된다.



## 호텔산업 트렌드 변화에 따른 도전 과제

<p><b>관광 트렌드</b></p>	<p><b>국내 숙박여행 수요</b> 엔데믹 선언으로 내국인 출국 및 외국인 입국 증가</p> <p><b>외국인 관광 수요</b> 방한 외국인 관광객 국적 구성 다양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국인 관광객 수 등 관광산업 지표 회복세</li> <li>· 해외여행 재개로 인해 수요 기반 변화 가능성</li> </ul>	<p><b>국내 숙박여행 수요 변화 대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해외여행 재개로 인한 내국인 출국 및 외국인 입국 증가로 인한 수요 기반 변화 대비 필요</li> <li>- 중국 소비자를 주로 타겟팅했던 기존 상품 다변화, 증가하는 동남아시아, 대만 등 관광객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을 통한 적합한 상품 개발 필요</li> </ul>
<p><b>소비 트렌드</b></p>	<p><b>MZ세대 소비 트렌드</b> '인스타그램머블,' '포토프레스,' '가심비'</p> <p><b>친환경 서비스</b> '미닝아웃(Meaning Out)'</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 선택 기준에 시각적, 경험적 측면 추가</li> <li>· 호텔 ESG 경영에 대한 요구</li> </ul>	<p><b>경험 및 개인의 취향 표현에 대한 니즈에 대응</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호텔의 객실 투숙 서비스뿐만 아니라 부대시설, 친환경 등 라이프 스타일을 창출할 수 있는 상품 및 다양한 옵션 기획</li> <li>- 호텔의 친환경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전략 필요</li> </ul>
<p><b>상품 및 공급 채널</b></p>	<p><b>리테일 사업</b> 호텔 브랜드 이미지 구축 → 수익 모델 다각화</p> <p><b>객실 상품 판매 채널</b> OTA, 이커머스 → D2C → 여행 구독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온라인 및 비대면 소비 패턴 강화</li> <li>· 판매 채널 확대를 통해 수익 모델 다각화</li> </ul>	<p><b>온라인 판매 채널 확대 및 다양한 상품 기획</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공식 홈페이지 전용 상품 개발 등 D2C 확대 전략을 수립하고, 기존 OTA 등 제3자 채널에 대한 수수료 절감 및 고객 데이터 관리 및 락인 효과 유도</li> <li>- 리테일 사업 확장, 구독 서비스 도입 등 상품 판매 채널 다각화 및 호텔 신성장동력 확보</li> </ul>
<p><b>기업 경영 및 운영</b></p>	<p><b>신규 사업 운영 방식</b> 직접 투자 리스크 최소화, 안정적 수익 창출</p> <p><b>디지털 컨시어지</b> 구인난, 인건비 상승 대응, 비대면 &amp; 다국어 서비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자산 경량화, 인건비 절감 등 영업수익성 개선을 위한 노력 증가</li> <li>· 추가 수익 확보를 위한 모델 계획</li> </ul>	<p><b>재무 부담 및 인력난 대응 방안 마련</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신규 사업 확장 시 위탁 운영 방식을 고려하는 등 사업 리스크 관리 및 재무 건전성 제고 방안 마련</li> <li>- 최근 고용둔화, 인건비 상승에 대응하여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 도입 등 호텔 운영에 대한 디지털 전환 지속 필요</li> </ul>

출처: 삼정KPMG 경제연구원

호텔 객실 상품의 공급 채널 또한 다양한 변화를 경험 중이다. 국내외 OTA(Online Travel Agency, 온라인 숙박 예약 플랫폼)는 온라인 여행 시장의 90% 이상을 점유하고 있으며, 플랫폼 경제의 성장으로 OTA에 대한 의존도는 더욱 증가했다. OTA는 B2B2C 비즈니스 모델로 호텔업체는 고객 데이터 수집이 제한적이며, 재방문 유도 등 고객 관계 관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이에 국내 호텔업체는 D2C(Direct to Customer, 소비자 직접 판매) 전략을 넓히고 있으며, 공식 홈페이지 전용 상품을 개발하거나 소비자 혜택을 확대하며 고객 데이터베이스 확보 및 락인 효과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최근 일본 최대 여행 구독 서비스인 하프(Hafu)가 국내 서비스를 시작하는 등 글로벌 여행 구독 서비스의 영역과 대상이 확대되고 있어, 호텔업체는 새로운 플랫폼을 도입해 객실 상품 판매 채널을 다각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끝으로 호텔은 고정비 부담이 높은 산업으로, 비용 절감에 대한 다양한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모바일 환경에 익숙한 MZ세대뿐 아니라, 코로나 확산으로 인해 전체 소비자들의 비대면 서비스에 대한 적응력이 향상됐으므로, 호텔의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에 대한 관심도 함께 확대되고 있다. 호텔은 모바일 체크인, 키오스크, 안내 및 배송 로봇 등 디지털 컨시어지 서비스를 도입하여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고객 경험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금 기지개를 켜는 호텔산업의 희망찬 미래만 가득한 것은 아니다. 근본적인 수익성 문제와 최근 대두되는 인력난 문제까지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이 남아 있다. 이럴 때일수록 산업의 트렌드 변화를 면밀히 파악하고, 변화에 맞는 대응책을 마련하는 지혜가 중요하다. 앞서 이야기한 바와 같이 디

지털 기술의 도입과 서비스 혁신, 판매 채널 확장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대응책이 필요하며, 무엇보다 고객 경험과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본 칼럼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보고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ACT US**

**Deal Advisory10본부**  
서광덕 전무  
Tel. 02-2112-0170  
E-mail. kwangdukseo@kr.kpmg.com

**경제연구원 이시연 연구원**  
Tel. 02-2112-0181  
E-mail. seanlee7@kr.kpmg.com

# 감사위원회의 든든한 동반자!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Audit Committee Institute)

삼정KPMG는 2015년 4월, 업계 최초로 국내 감사위원회 및 감사의 올바른 역할 정립과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udit Committee Institute, ACI)를 설립했다. 설립 이후 ACI 핸드북 발간을 비롯한 다양한 발간 활동 및 교육 프로그램,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세미나 등 감사위원회의 위상 제고와 실질적인 역할을 지원해왔다. 삼정KPMG는 올해 1월 새롭게 ACI 조직을 개편하며, 더욱 강화된 전문성으로 감사위원회의 올바른 역할 수행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가고자 한다.

## ACI에서 제공하는 주요 서비스

### 연구 및 발간 활동

- 감사위원회 핸드북, 이슈리포트, 카드뉴스, 서베이 리포트 등 다양한 발간물
- 학계 교수와 특정 주제에 대한 대담 영상
- 유튜브 동영상 콘텐츠

### 정기 세미나 등 대외 행사

- 감사위원 및 감사를 위한 정기 세미나 (ACI 세미나)
- 신규로 선임된 감사위원 및 감사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AAP: Advanced Auditor Program)

### 기업 교육 및 자문 활동

- 기업 맞춤형 감사위원회 및 감사를 위한 워크숍
- 감사위원회 지원조직을 위한 교육
- 기타 기업으로부터의 질의회신과 자문 제공

### 유관기관과의 공동 저술 활동

- 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감사협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과 감사위원회 직무해설 및 운영 가이드 저술



환한 미소로 파이팅을 외치는 감사위원회 지원센터!





## 나날이 더욱 중요해지는 감사위원회의 역할

최근에 아시아기업지배구조협회는 'CG WATCH 2023: 새로운 질서'라는 표제의 보고서에서 한국의 기업 거버넌스 현황을 아시아 12개국 중 8위로 평가했다. 한국은 과거 2020년 9위에서 이번에는 8위로 한 단계 상승하기는 했으나, 일본의 경우 5위에서 2위로 순위가 꺾총 올라갔다. 일본은 임금 정체, 저출산, 소득 불평등의 사회적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적극적인 기업가치 제고'를 기치로 한 일본의 기업 거버넌스 개선은 상당히 주목할 만하다.

한국 금융위원회에서도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고, 주주가치를 제고하는 문화를 정착 시키겠다고 밝혔다. 일반주주들의 권익을 강화하고 배당제도와 외국인 투자 절차를 선진화하는 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한 주요 과제로 추진됐다. 독립적인 입장에서 경영진을 감독해야 하는 감사위원회의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감사위원회는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 이사회가 정한 경영 전략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사전적으로 감독하는 역할이 더욱 요구된다.

## 감사위원회 및 감사 역할 정립에 앞장서온 ACI!

### 더욱 강화된 전문성으로 기업 회계투명성 기여할 것

그간 감사위원회와 감사는 건전한 기업 거버넌스 확립과 회계 투명성 강화를 위한 필수적인 조직이지만, 과거에는 실무적으로 이를 지원할 자료나 정보가 극히 부족했다. 삼정KPMG는 업계 최초로 2015년 4월에 ACI를 설립해, 다양한 연구와 발간 활동을 수행해왔으며 동영상 드라마를 제작해 차별화된 세미나를 진행하는 등 업계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해왔다. 이러한 삼정KPMG ACI의 노력으로 감사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가 한층 높아졌고 그 중요성을 인식하게 됐다. 아울러 감사위원회의 역할에 걸맞은 자문과 지원을 제공해야 하는 삼정KPMG ACI의 기대 역시 점점 높아지고 있다.

삼정KPMG ACI는 40여 개국에서 활동 중인 KPMG Global ACI와의 협업을 통해 감사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선진 자본시장의 이론과 사례를 바탕으로 다수의 고객사의 감사위원회 제도 정착에 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쌓아온 실무 경험으로 ACI 전문가가 집필하고, 법·회계·경영 분야 석학으로 구성된 ACI 자문교수단 자문을 받아 국내 최초로 감사위원회 핸드북을

출간했고, 지난 2023년에는 3차 개정이 이뤄졌다. 또한 감사위원회 활동의 생생한 활동을 극화로 제작하여 높은 호응을 얻고 있는 ACI 세미나는 2015년 첫 개최된 이후 누적 3,500명 이상의 감사와 감사위원이 참여한 최대 규모의 행사로 자리 잡고 있다.

최근 경영환경의 변화에 따라 감사위원회의 책임과 의무가 증가하고 있으며 요구되는 지식의 수준도 더욱 전문화되고, 다양화하고 있다. 이에 발맞춰 삼정KPMG는 감사본부 출신의 김민규 전무를 새로운 ACI 리더로 선임, 감사 현장의 실무 경험과 학계와의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한층 강화된 ACI 콘텐츠 개발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주요 이슈를 신속, 간결하게 전달하고자 주 단위로 카드뉴스와 월별로 Monthly News Letter를 발간하고 있다.

또한 산업별 감사본부 파트너로 구성된 ACI Committee의 지원으로 적시성 있는 이슈를 선정하고, 삼정KPMG 경제연구원의 산업별 전문가와 협업하여 감사위원회의 활동에 필요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심층적인 주제에 대해서는 ACI 자문교수단 등과의 협의를 통해 대담 영상과 이슈리포트 등을 배포해 콘텐츠의 전달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동영상 드라마를 통한 ACI 세미나 및 AAP를 실시하고, 이외에도 기업 맞춤형으로 기업 또는 그룹 특성을 감안한 Private 교육 Session을 세분화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각오 한마디!



김민규 전무 (팀 리더)  
mingyukim@kr.kpmg.com

“이사회는 경영책임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감독의무를 가진 감사위원회 업무의 중요성도 비례합니다. 삼정KPMG ACI는 국내에서 가장 폭넓은 경험과 지식을 보유한 조직으로,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감사위원회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하기 위한 어떠한 질문에도 최고의 답변을 드리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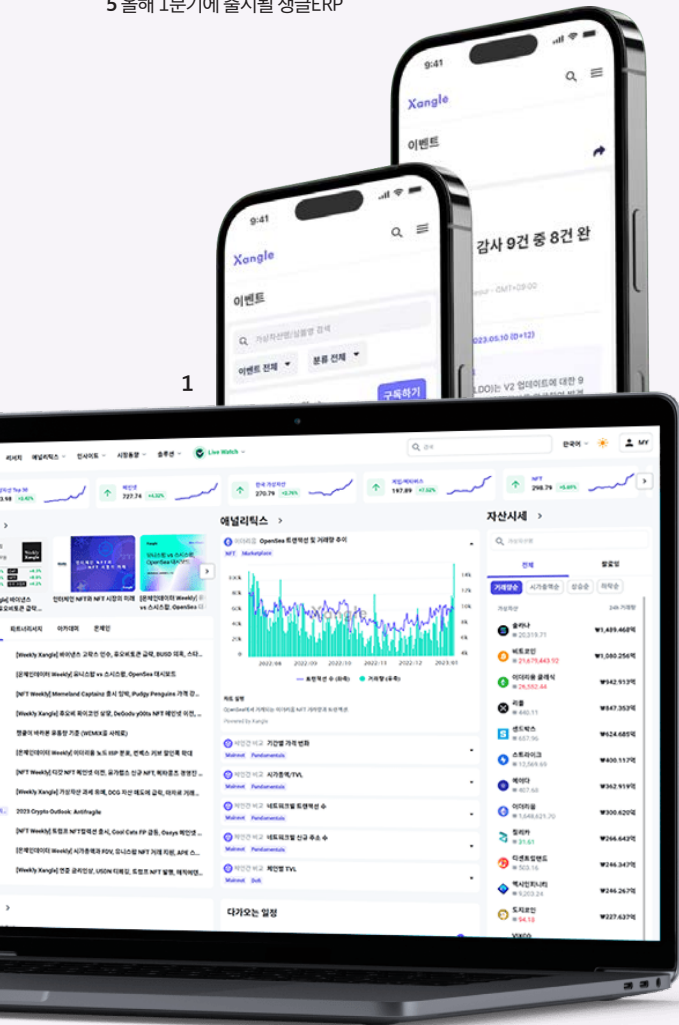
심정훈 상무 (팀 부 리더)  
jshim@kr.kpmg.com

“삼정KPMG ACI가 쌓아온 지식과 함께 법인 내부의 전문가와 ACI 자문교수와의 협업은 현재의 감사위원회에게 요구되는 내실 있는 활동에 대한 해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콘텐츠 전달을 위해 카드뉴스와 대담 영상을 기획하여, 적시성 있는 콘텐츠로 한층 더 신속하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 웹3 비즈니스 위한 최적의 파트너, 쟁글(Xangle)

쟁글(Xangle)은 2018년 8월에 설립되어, 온체인 데이터 기반 웹3 비즈니스 솔루션 제공 및 글로벌 가상자산 분석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상자산 프로젝트가 다양한 시장 참여자들의 니즈를 명확히 파악해 구체적인 비즈니스 방향을 잡을 수 있도록 지원 중이다. 최근에는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에 맞춰 기업들이 웹3(Web3) 산업에 쉽고 안전하게 진입하도록 기업 고객을 위한 쟁글ERP(Xangle ERP)를 준비하고 있다.

- 1 쟁글 가상자산 플랫폼
- 2 B2B 대상으로 열리는 쟁글 어도션 소개안
- 3 2023 쟁글 어도션 현장
- 4 쟁글 사무 공간
- 5 올해 1분기에 출시될 쟁글ERP



Adoption은 웹 3.0의 단순 기술 차원을 넘어 비즈니스 전략 수립 관점에 있어 국내 굴지의 기업들과 블록체인 산업을 선도하는 뛰어난 글로벌 기업들이 웹 3.0로의 진을 위한 실질적 노력과 방향을 논의하며 네트워킹할 수 있는 **Private B2B 컨퍼런스**입니다.

2 / 업계 주요 인사들의 기조 연설 / 국내외 저명한 전문가들의 패널 토론 / 기업 간 비즈니스 미팅 / 참가자 간 네트워킹 기회





## 온체인 데이터 전문성 기반으로 탐티어 우뚝!

쟁글(Xangle)은 2018년도 설립 이래 블록체인 기술의 대중화라는 목적지를 향해 꾸준히 걸어온 온체인 데이터 기반 솔루션 회사다. 모든 거래가 체인 위에 남는 블록체인 기술의 고유한 특성을 바탕으로, 온체인 데이터에 대한 전문성을 갖고 닥아 해당 분야의 탐티어(Top-tier) 반열에 올랐다. 2022년 4월에는 상대적으로 가상자산 관련 투자에 보수적이라고 알려진 전통 금융권으로부터 170억 원에 이르는 시리즈B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최근에는 빠르게 변하는 업계의 트렌드 속에서 니즈를 정확히 포착해 자체 온체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웹3 ERP(전자적자원관리) 솔루션 Xangle ERP 베타버전을 선보였다. 베타버전임에도 즉각적인 비즈니스 활용도가 높아 웹3 업계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웹2 기업들로부터 큰 관심을 받고 있다.

## 웹3 대중화 선두주자! 기업 솔루션 '쟁글ERP' 출시

쟁글은 2024년 1월 브랜드 리뉴얼을 통해 새로운 로고를 공개하고, 올 상반기 내 쟁글ERP(Xangle ERP) 공식 출시를 야심차게 준비하고 있다. 쟁글ERP는 웹3 비즈니스 현장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덜기 위해 만들어진 쟁글의 대표적인 SaaS(Software as a Service) 솔루션이다. 즉, 웹3 프로젝트를 다루는 기존 기업과 스타트업들이 빠르고 정확하게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고 데이터 기반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웹3용 ERP 프로그램인 셈이다.

특히, 쟁글은 실무적인 효율성과 업무 특성의 전문성까지 솔루션에 녹여내기 위해 해당 분야 최고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곳들과 협업해 왔다. 쟁글ERP의 대표적 기능은 ▲가상자산의 회계처리를 돕는 웹3 파이낸스 ▲주요 토크노믹스 지표를 대시보드로 모니터링해 투입 리소스와 리스크를 줄이는 토크노믹스 ▲성과를 추적·분석하고 타 프로젝트와 비교할 수 있는 퍼포먼스 애널리틱스 등이다. 현장 반응은 매우 뜨겁다. 지난해 12월 중순 베타테스트 버전이 출시된 이래 벌써 70여 군데가 사용 중이다.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을 비롯한 해외에서도 관심이 높아 상담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도입으로 이어지고 있다.

## 아시아 최대 규모 B2B 웹3 콘퍼런스 '어둠션' 개최 등 블록체인 기술의 실질적 도입 통한 생태계 확장에 힘써

쟁글의 목표는 정보 비대칭 해소와 투명성 제고를 통한 건전한 웹3 생태계의 확장이다. 이를 통해 블록체인 기술이 줄 수 있는 이점을 보다 많은 대중이 일상에서 누릴 수 있는 세상을 하루빨리 앞당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쟁글은 명확한 법적 규제나 가이드라인이 마련

되기 전부터 쟁글은 통찰력 있는 분석 보고서와 공시 서비스를 바탕으로 업계의 공신력을 쌓아왔다. 특히 쟁글 오리지널 보고서는 블룸버그 터미널을 비롯해 연합인포맥스, FnGuide, 코인마켓캡 등 국내외 주요 플랫폼에 등재되며 그 전문성을 널리 인정받고 있다.

쟁글은 웹3 비즈니스를 위한 전문 자문과 정기적인 B2B 특화 행사를 통해 차별화된 비즈니스 네트워킹을 제공한다.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단순 관심을 넘어 직접적인 플레이어와 의사결정권자 풀을 중심으로 관심이 높아 웹3 산업 생태계의 실질적인 성장을 이끌고 있다. 2022년부터 매년 블록체인 대중화를 기치로 진행되는 B2B 콘퍼런스 쟁글 어둠션(Adoption)이 대표적이다. KBW(코리아 블록체인 위크) 행사의 일부로 시작된 쟁글 어둠션은 첫해의 큰 성공에 힘입어 2회부터 바로 자체 행사로 독립했다. 2023년 진행된 제2회 쟁글 어둠션에는 총 200여 군데가 넘는 회사 소속의 600여 명을 아우르는 업계 전문가와 실무자가 참석해 실질적인 국내 웹3 대중화를 견인했다.

한편, 많은 전문가가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과 오는 7월 한국의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시행 예정 등 웹3 산업 관련 국내외 규제가 구체화되면서 2024년이 웹3 대중화의 중요 분기점이 될 것이라 전망한다. 그간 불확실성을 견디며 쌓아 올린 쟁글만의 전문성과 신뢰를 바탕으로, 쟁글은 웹3 시대를 선도하는 데이터 기반 솔루션 업체로서의 선두를 다져가고 있다.

5

**Xangle ERP**

**Simplify, automate, and optimize your web3 operations.**

Xangle ERP alleviates the burden of tedious and time-consuming tasks, freeing up valuable resources to fuel innovation and drive transformative growth within the web3 industry.

**Web3 Finance Operation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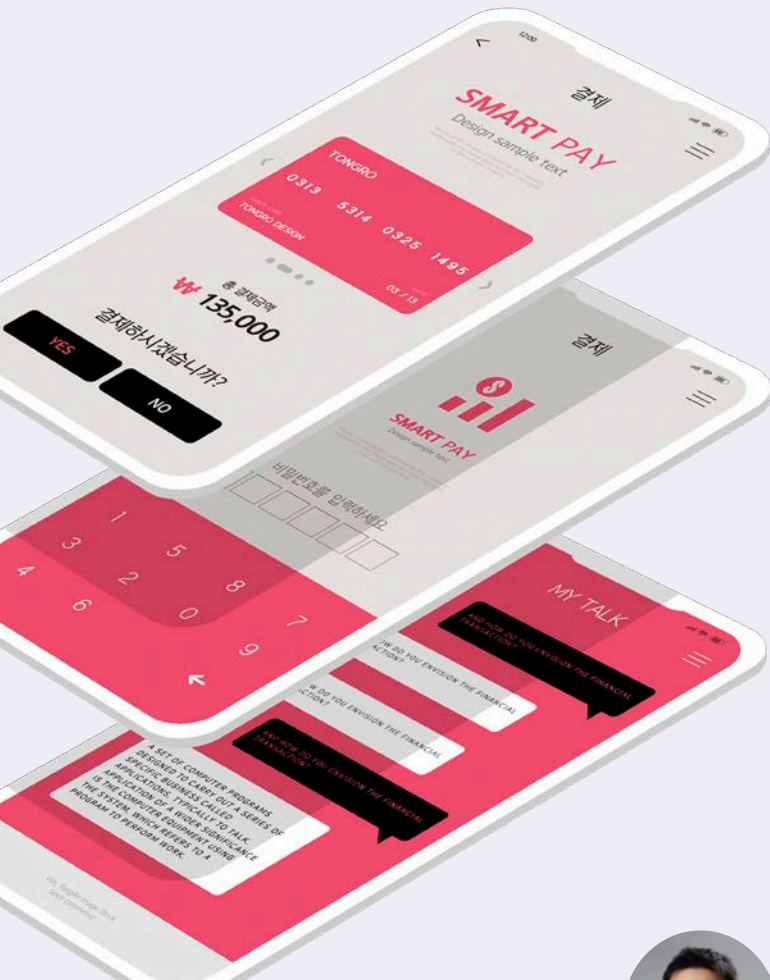
**Performance Analytics**

**Tokenomics**

\$20.13	1.92M	20.13K	5.97K
1.92M	1.92M	190.12K	

# 간편결제 무한경쟁, 페이먼트 대표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

지갑 없이 외출하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요즘, 간편결제 서비스가 활성화됐다. 금융업을 비롯해 다양한 산업의 비금융업자들 역시 간편결제 시장에 활발히 진출하며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 특히, 지난해 3월 애플페이가 현대카드와 손잡고 국내에선 정식 서비스를 개시하면서 간편결제 및 카드 업계 발걸음이 한층 바빠졌다. 이번 호에서는 금융 전문가의 견해를 통해 간편결제 무한 경쟁 시대, 페이먼트 대표 주자가 누가 될 것인지 살펴봤다.



## Q 간편결제 서비스의 산업 규모는 어떠하며, 국내 기업은 어떻게 대응하고 있나요?

간편결제 서비스는 전자상거래(E-Commerce)와 함께 성장하면서 인터넷쇼핑 시 소비자가 가장 많이 선택하는 결제 방식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휴대폰 제조사, 전자금융업자, 금융사가 제공하는 국내 간편결제 서비스는 2023년 상반기 중 일평균 2,628만 건, 8,451억 원 이용되면서 지난 2022년 상반기 대비 건수는 13.4%, 규모로는 16.9% 증가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는 애플페이가 현대카드와 손잡고 국내에서 정식 서비스를 개시했습니다. 국내 오프라인 간편결제 최강자인 삼성페이는 네이버페이와 협력하여 온·오프라인 간편결제 시장에서의 지위를 공고히 다지는 데 노력하고 있고, 국내 카드사들은 QR코드 공동 결제망 구축, 컨택리스(Contactless) 카드 도입 확대 등을 통해 반전을 노리는 상황입니다.

간편결제 사업자들의 서비스 범위는 단순히 결제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주요 빅테크 기업들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받아 금융 이력이 부족한 신평파일러(Thin Filer)에게 일정 금액의 신용을 부여하는 소액 후불결제(BNPL, Buy Now Pay Later)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자체 개발 대안신용평가모형을 발전시키고 금융 마이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온라인·원스톱 대환대출을 비롯하여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는 선불충전 서비스까지 연계 서비스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액 후불결제 서비스는 금융 접근성을 제고하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나, 연체 정보 공유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발판 마련이 필요합니다.

Digital 김세호 상무

Tel. 02-2112-7879  
E-mail. seihokim@kr.kpmg.com



<이 칼럼은 지난 1월 11일 게재된 한국경제 CFO Insight '간편결제 무한경쟁, 페이먼트 대표 주자는 누가 될 것인가?'를 바탕으로 정리되었습니다.>



## Q 플랫폼 기업들의 간편결제 서비스 전략은 무엇이 있을까요?

간편결제 플랫폼의 경우, 보다 많은 이용자 확보, 사용자 경험 확장, 오프라인 결제 데이터 집적 등의 이점으로 오프라인으로 확장하려는 움직임이 분주합니다. 대표적으로 네이버페이는 삼성페이와 손잡고 2023년 3월부터 양사의 결제 시스템이 연동된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토스는 BGF리테일과 전략적 제휴 업무 협약을 통해 편의점 CU에서 토스페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엔데믹에 따른 해외여행 활성화로 카카오페이, GLN, 제로페이 등이 알리페이, 유니온페이 등과 제휴해 해외 가맹점을 확대하거나 한국에 방문하는 외국인의 결제 편의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오프라인 고객과의 접점을 활발히 늘리고 있습니다.

## Q 비금융 기업은 간편결제 산업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나요?

비금융 기업은 간편결제 시장의 경쟁 심화로 인해 전략이 이원화되는 모습을 보입니다. 일부 유통사나 금융사 등은 간편결제 사업을 정리하거나 매각을 진행하는 등 선택과 집중을 통해 본연의 비즈니스에 더욱 집중하려는 움직임을 보입니다. 반면 결제 편의성 제공, 미래 성장동력의 일환 등으로 자체 간편결제 시스템 도입을 통해 기존 비즈니스와의 시너지를 강화하고자 하는 현대자동차, 쿠팡, 무신사의 행보도 눈에 띕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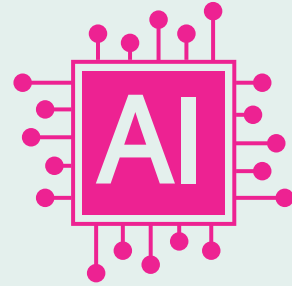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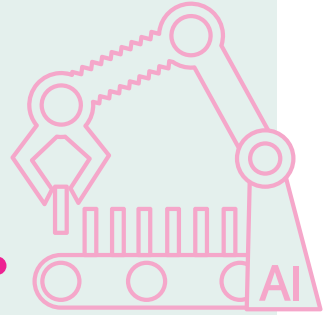
## Q 간편결제 시장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조언이 있을까요?

국내 간편결제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플레이어들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플랫폼 기업들은 자회사 서비스와의 연계성을 강화하며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차별화된 서비스를 선보여야 합니다. 카드는 지급결제 인프라에서의 지위를 활용하여 QR코드 공동 규격 등 별도의 결제 기준을 구축하기 위해 노력하는 동시에, 지주사 네트워크 활용을 통한 고객 접점 확보, 맞춤형 서비스 개발 등이 필요합니다. 끝으로 간편결제 사업자들은 안정적인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정보 보안, 다중채무 관리 등 안전성과 건전성 제고에도 힘써야 할 것입니다.



# 알아두면 쓸데있는 시사·경제 용어사전

최근 인공지능(AI) 기술로 인해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일하는 방식의 변화는 물론 AI를 탑재한 새로운 기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AI 기술로 무장한 1인 기업가를 칭하는 용어와 고부가·고성능 메모리에 대해 살펴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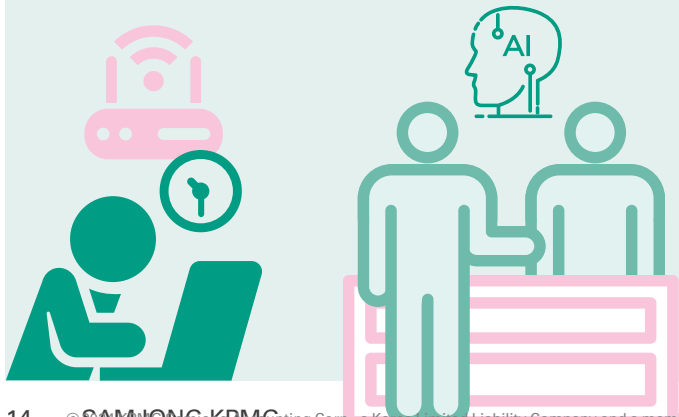


## 실리콘밸리의 화두, 최신 AI 기술로 무장한 1인 기업가

### 솔로프러너 (Solopreneur)

최근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가장 '핫'한 단어 중 하나가 무엇인지 아시나요? 바로 '솔로프러너'입니다. 이는 'Solo(솔로)'와 'Entrepreneur(기업가·엔터프러너)'의 합성어로 '1인 기업가'를 의미해요. 과거에는 '1인 자영업자' 정도를 의미했지만, 최근에는 최신 인공지능(AI) 기술로 무장한 첨단 스타트업을 지칭할 때 쓰인다고 해요. 이는 챗GPT가 촉발한 생성형 AI 혁명이 이끈 변화인데, 솔로프러너는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 향상을 꾀한다는 특징이 있어요.

일례로 실리콘밸리 1인 기업가 바누 테자는 웹사이트 콘텐츠 제작을 기반으로 빠르게 챗봇을 제작해주는 서비스를 제공, 지난해 약 15만 달러(2억 원) 이상의 매출을 올렸다고 해요. 이는 기존 기업의 조직 형태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어요. 예전에는 다양한 등급의 인력이 필요했지만, 앞으로 AI를 보조 인력처럼 활용하며 B급 인력의 필요성이 감소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에 인재 육성 방향도 AI가 S급 인재를 보조하는 방식으로 변할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 고성능·고부가 메모리 시장에서의 새로운 패러다임!

### 고대역폭메모리 (HBM, High Bandwidth Memory)

챗GPT 등 새로운 생성형 AI가 등장하며 메모리 시장의 패러다임이 변화되고 있어요. 고성능 메모리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이에 따라 메모리 제조사들은 고대역폭메모리(HBM) 경쟁력 강화를 위해 투자를 확대하고 있어요. 정부가 반도체 분야 국가전략기술로 선정한 HBM은 D램 여러 개를 수직으로 연결해 데이터 처리 속도를 혁신적으로 끌어올린 차세대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서 대역폭은 초당 데이터 전송 속도를 의미하는데, HBM은 말 그대로 초당 데이터 전송 속도를 기존 제품보다 획기적으로 개선시킨 제품이에요. 특히 AI 반도체에 필수적으로 탑재됩니다!

시장조사 기관 가트너에 따르면 HBM 시장 규모는 지난해 20억 달러에서 2027년에는 51억 달러까지 2.5배 가량 성장할 것으로 보여요. 트렌드포스도 지난해부터 2025년까지 HBM 시장 규모가 연평균 45% 급성장할 것으로 내다봤고요. 지난 1월 말 업계에 의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HBM 시장 점유율은 90%가 넘는다고 해요.



# 행복한 일터 Happy Workplace



## 55주년 특집 I

KPMG Korea 55주년!  
우리가 걸어온 길! 찬란한 미래를 향해

16

## 55주년 특집 II

삼정신춘문예  
'오오주년(연) 4행사'를 부탁해!

20

## 삼정동호회자랑

짜릿한 모험을 즐기는  
스카이다이빙

22

## 세계가 열린다

외국인 투자에 적극적인 나라, 체코

24

## 이동규의 두줄칼럼

목표와 방향

26

## 心 Care

갈등을 다룰 용기가 있는 회피를 위해

28

## Samjong News

신임 감사부문 대표에 변영훈 부대표 임명 外

30



# KPMG Korea 55주년! 우리가 걸어온 길! 찬란한 미래를 향해



**1989**  
· 20주년 행사

**1987**  
· Global PMI와 KMG 간의 합병으로 KPMG 탄생  
· 산동KPMG로 사명 변경

PMM Global Newsletter, 1969



**1969~1981**  
· 역사의 첫 걸음

**1969** 임직원 10명

- Big8 중 최초로 Peat Marwick Mitchell (PMM) 서울사무소 개설
- Chase Manhattan 은행, Standard Chartered 은행, Citi 은행 감사 수행

**1978**

- PMM이 Peat Marwick International (PMI)로 사명 변경

**1972**

- 농협, 선경목재(현 SK그룹), 극동석유(현 현대오일뱅크) 감사 수행

**1980**

- 서울역 앞 대우빌딩으로 사무실 이전
- 최초의 해외 파견 (김중호, PMI LA Office)

**1994**

- 논현동 건설공제회관으로 사무실 이전

**1995**

- Corporate Finance 팀 발족
- 산동 LAN (사내 네트워크) 구축

**1993**

- 경영혁신 슬로건 'Experts 21' 발표
- 증권감독원(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A등급 우수감사인으로 선정

**1982~1999**

· KPMG Member Firm 시대 개막

**1986** 임직원 100명

- 산동 경영연구원 설립(추후 산동컨설팅으로 사명 변경)
- 임직원 수 100명 돌파

**1985**

- 동영회계법인과 산경회계법인의 합병, 산동회계법인(산동PMI) 설립
- 광화문 코리아나호텔 빌딩으로 사무실 이전
- 부산지사 설립
- PC (맥킨토시)를 활용한 외부감사 시작

**1982**

- 동영회계법인 설립 및 PMI와 제휴
- 여의도 사학연금빌딩으로 사무실 이전



1996  
· 경남지사(창원) 설립

1997  
· Vision 2000 선포

1998  
· 업계 최초 산업별 전문화 조직으로 개편  
· Corporate Recovery 팀 발족  
· 인터넷 홈페이지 최초 개설

1999  
· KPMG파이낸셜서비스  
(현 Deal Advisory) 설립  
· 업계 최초 FRM Practice 신설

멤버십 체결식, 2000



2000  
· KPMG와 삼정회계법인 제휴

파트너 단체사진, 2001



2001  임직원 500명  
· 역삼동 스타타워(현 GFC)로 사무실 이전  
· 임직원 수 500명 돌파

2005  
· 사내 교육센터(L&D센터) 신설  
· 영남지사 설립  
· 경제연구원(ERI) 설립  
· 회계법인 감사대상 수상

2003  
· 국내 최초로 국제통상  
전문법인 '삼정ITC' 설립

부산지사 설립, 1985



2006  임직원 1,000명  
· 임직원 수 1,000명 돌파

2007  
· Advisory Inc. 설립  
· Samjong Investment Advisory Inc. 설립



2000~2010  
· 삼정KPMG 성장 토대 마련



Vision 2020 선포식, 2016



## 2016

- Vision 2020: The Clear Choice 선포
  - '건강한 성장', '행복한 일터', '신뢰받는 조직'
- 사업재편 지원센터 설립
- 스타트업 지원센터(SIC) 설립
- 고용노동부 주관 '남녀고용평등 우수기업' 수상
- 세계여성이사협회(WCD) 한국지부 창립 후원

## 2017

- PCAOB Inspection 결과 'No Comments' 달성
- GFC 29층 오피스 확장

## 2015

- 업계 최초 감사위원회 지원센터(ACI) 설립
- GFC 27층으로 메인 오피스 이전 및 확장
  - S.Manager 승진자 해외 연수 개시
  - Phil Mickelson Invitational 개최

Main office 이전, 2015



S.Manager 승진자 해외 연수 개시, 2015



## 2014

- 대북비즈니스지원센터 설립
- GEP 우수자 해외 연수 개시

## 2012

- 몽골 합작법인 설립
- 회계법인 감사대상 수상

## 2009

- Consulting Service 사업부문 출범

## 2011

- 김교태 CEO 취임
- Global Korea Practice 설립
- 삼정사랑나눔 설립

## 2008

- 역삼동 성서공회빌딩(부속건물) 입주
  - 보험계리 설립
  - Family Day 제도 최초 시행
- 성서공회빌딩 현판식, 2008



## 2010 임직원 2,000명

- 컨설팅 Inc. 설립
- Bearing Point 사업부 인수
- Global Elite Program (GEP) 도입
- 임직원 수 2,000명 돌파

## 2011~2023

- Big 2 양강체제 구축
- 자랑스러운 성취 Vision 2020 & 희망찬 도전 Vision 2025
- 인재를 향한 더 좋은 변화 People First





유연근로제 도입 협약식, 2018

## 2018 임직원 3,000명

- 업계 최초 유연근로제 도입
- 한국회계학회 공동 삼성KPMG Professor 제정
- 업계 최초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파란행복' 설립
- 여성 리더십 프로그램 도입

KPMG Korea 50주년 기념 콘서트, 2019



KPMG Korea 55주년 기념 타임캡슐 봉인식, 2019



## 2020

- 자랑스러운 Vision 2020 초과 달성
  - 총사업수익 6,000억 원 초과 달성하며 2배 이상 성장
  - 확고한 Big2 양강체제 구축
- 행복한 일터 협의회 구성
- GFC 28층 스마트오피스 추가 오픈
- KPMG Ideathon 대회 신설
- 구성원과 가족을 위한 Benefit Program 다양화

## 2019

- KPMG Korea 50주년 - '5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
  - 50주년 콘서트 개최
  - 자랑스러운 여정을 기념하는 타임캡슐 봉인 등 다양한 활동 전개
- 국내 최초 ESG 비즈니스 그룹 출범 (확대 개편)
- 감사교육위원회 및 감사품질위원회 구성
- 중앙일보 공동 NK비즈포럼 운영 협약 체결
- GFC 8층 스마트오피스 오픈

## 2021

- Vision 2025: To Be No.1 선포
- 5년 연속 KPMG Global Board Country 최고 성장 달성 (2017~2021년)
- 중간 성과급 제도 도입
- 업계 최초 클라우드 기반 감사 플랫폼 KCw 도입
- M&A센터 설립
- 온라인 교육 플랫폼 '삼성KPMG 아카데미' 런칭

KPMG ASPAC Partners Conference 한국 최초 개최, 2023



구성원들의 소통 앱 'K-People' 오픈, 2023



## 2022 임직원 4,000명

- 7년 연속 두 자릿수 성장률 달성 (2016~2022년)
- 업계 최초 리세션 대응센터 설립
- 기업승계지원센터 설립
- 삼성KPMG 챔피언십 대회 신설
- GFC 전층 스마트오피스 확장 오픈

## 2023

- 인재를 위한 People First 전략 재정비
  - 'Innovative Change', 'Smart Caring', 'Best Compensation'
- 국내 최고 기업들의 외부감사인으로 선정
  -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신한금융, 우리금융 등
- 업계 최초 AI센터 설립
- 가상자산지원 설립
- KPMG ASPAC Partners Conference 한국 최초 개최
- 9년 연속 신입회계사 최다 채용 (2015~2023년)
- 구성원들의 편안한 소통 위한 K-People 앱 오픈





## 삼정신춘문예

# ‘오오주년(연) 4행시’를 부탁해!

입춘을 지나 싱그러운 계절 봄을 향해 가는 요즘, ‘Channel’에서는 ‘삼정신춘문예’ 공모전을 진행했다. 주제는 바로 KPMG Korea 55주년을 기념하며, ‘오오주년(55주년)’ 4행시이다. 윗트 넘치는 글솜씨로 다채로운 4행시를 보내온 삼정인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 김용일 S.Senior (Tax3)

- 오:** 오랫동안 공부를 끝마치고
- 오:** 오늘 드디어 삼정회계법인으로 출근합니다!
- 주:** 주황색 3호선을 타고
- 년(연):** 연두색 2호선으로 환승해서 역삼으로 도착!

“삼정회계법인에 첫 출근했을 때를 떠올리면서 4행시를 작성해보았습니다.”

### 최예슬 S.Senior (Tax3)

- 오:** 오랫동안 바래왔어
- 오:** 오로지 우리가 1등 법인 되는 날. 여기 좀
- 주:** 주목해 봐. 갑진
- 년(연):** 년은 청룡의 해, 삼정의 해가 될 거니까!

“갑진년은 청룡의 해, 삼정의 시그니처 컬러와 일치하는 점에서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 Go 삼정!”



### 황지우 S.Consultant (RC)

- 오:** 오늘이 있기까지
- 오:** 오랜세월 그 자리에서
- 주:**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한 그들에겐 55주년이 마치
- 년(연):** 연이 되어 흐르는 세월과 같았네

“4행시에도 적었듯이 많은 분들이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묵묵하게 주어진 업무에 최선을 다해주셨기에 함께 55주년이라는 뜻깊은 기념일을 맞을 수 있었습니다! 직급고하를 막론하여 최선을 다하신 분들께 박수를 보내드리고 싶습니다!”

### 이연주 Manager (RC)

- 오:** 오늘 삼정KPMG는 55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 오:** 오롯이 업계 최고를 향해 모두 함께 달려왔기 때문에, 오늘의
- 주:** 주인공은 바로 삼정 People입니다
- 년(연):** 연일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시는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가 더욱 빛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 달려온 삼정KPMG의 모든 임직원 분들이 자랑스럽습니다.”



**임근택 Senior (B&F3)**

**오:** 오랜 세월 함께한  
**오:** 오래도록 이어져갈  
**주:** 주인공처럼 빛나는 우리의  
**년(연):** 연이 영원하길



“삼정KPMG와 영원히 함께 하고 싶은 마음으로!”

**박선윤 과장 (LLC 임원실)**

**오:** 오늘은 어제의 모습이고 내일은 오늘의 결실이라  
**오:** 오십오년 성상(星霜)이 흘러 천명(知天命)에 이르니  
**주:** 주인의 마음으로 다같이 함께 하면  
**년(연):** 연년세세(年年歲歲) 넘버원 삼정KPMG!

“연년세세 넘버원 삼정KPMG를 기원하며!”

**이경희 대리 (Q&RM-RM)**

**오:** 오직  
**오:** 오월을 위해서  
**주:** 주말도 없이  
**년(연):** 연습하고 있습니다 - KPMG's Got talent  
1등을 향해!

“55주년 콘서트 무대에 서기 위해 친구들과 열정적으로 연습하고 있습니다! 무엇인지는 비밀! 기대해주세요! :)”



**박상은 Analyst (Deal Advisory3)**

**오:** 오 영원한 친구 ♪  
**오:** 오 행복한 마음 ♪  
**주:** 주식회사 외부감사, 재무자문, 세무자문에는  
**년(연):** 연평균 성장률 15%에 빛나는 한국인의  
회계법인 삼정KPMG!

“(두통약 게보린 CF 오마주) 회사와 구성원 모두가 성장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합니다.”



**신운근 차장 (ITS)**

**오:** 오랜 시간 동안  
**오:** 오직 정직과 신뢰로  
**주:**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여  
**년(연):** 연이어 성장해 온 자랑스러운 KPMG Korea  
55주년을 축하합니다!

“KPMG Korea 55주년 기념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랜 시간 동안 정직과 신뢰를 바탕으로 열심히 일해온 노력과 성장을 축하와 이를 통해 임직원들의 노고를 인정하고, 앞으로도 지속적인 발전과 성공을 기원하는 긍정적이고 격려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김지원 S.Senior (IT Audit)**

**오:** 오, 햇살로 가득찰 어느 따스한 봄날을 기다리며  
**오:** 오십오주년을 맞은 우리가 걸어온 길을 돌아보네  
**주:**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수많은 삼정인의 땀방울, 한데 모여  
**년(연):** 연보라 라일락처럼 향기로운 업적을 많이도  
피웠구나!

“KPMG Korea 55주년을 축하드립니다! 그동안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맡으신 업무에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근무하시는 수많은 동료 삼정인들께 응원과 감사함의 메시지를 전하고 싶습니다.”







I believe i can fly~!

## 짜릿한 모험을 즐기는 스카이다이빙

“I believe i can fly~!” 하늘을 날 수 있다고 믿는 삼정인들이 있다. 바로 i-Fly라는 이름으로 활동하는 스카이다이빙 동호회원들이다. 이번 호에서는 짜릿한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은 이들을 만나, 스카이다이빙이 주는 매력에 흠뻑 빠져본다.





### # 스카이다이버와 함께하는 짜릿한 도전!

i-Fly는 삼정KPMG의 스카이다이빙 동호회로, 지난해 여름에 신설됐다. 동호회 부회장을 담당하는 신수련 Director는 스카이다이빙 자격증을 보유한 스카이다이버로, 삼정인들과 함께 이러한 과감하고도 짜릿한 취미를 즐기고 싶은 마음에 동호회를 창립했다. 신설 6개월 만에 21명의 회원이 가입했을 만큼 인기가 심상치 않다.

### # 호기심에서 시작! 독특한 경험마저 기대돼

**경남선 과장(총무팀):** 사실 스카이다이빙은 쉽게 접하기 힘든 액티비티잖아요. 그래서인지 더욱 호기심이 생겼고, 무엇보다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 가입하게 됐어요.

**김태현 Consultant(RC):** 맞아요! 저 역시도 스카이다이빙만의 자유로움과 강한 아드레날린에 대한 호기심이 있었어요. 다른 스포츠에서 느끼지 못할 독특한 경험일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사내 동호회로 생겼단 소식에 지원하게 됐죠.

**곽해리 Senior(IM4):** 무엇보다 초보자들을 위한 단계별 활동이 마련되어 있어 좋아요! 스카이다이빙을 하기 전 실내 윈드터널에서 낙하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머리를 묶지 않고 활동에 참여해, 엉킨 머리를 푸느라 애를 좀 먹었지만요. 하하.

### # 해방감과 스트레스 Down, 그리고 코어 운동은 덤!

**최효재 S.Manager(DA9):** 스카이다이빙을 해보니, 자유낙하 하는 그 짧은 시간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죠. 무중력 상태의 그 해방감이 참 매력적인 스포츠랍니다.

**이인혜 Director(RC):** 하늘을 나는 것 같은 기분이 상상 이상으로 매력적입니다. 특히 윈드터널 안에서 스스로의 힘으로 높낮이와 방향을 조절하는 것이 신기해요, 무엇보다 코어 근육으로 바람의 세기를 이겨내야 하기에 전신운동에도 좋아요.

**박균재 S.Consultant(MC1):**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제가 몸에 힘을 어떻게 주는지, 자세를 어떻게 잡는지에 따라 윈드터널에서 순식간에 위치와 속도가 바뀌기 때문에 어렵지만, 기분은 짜릿해요.

**김민주 S.Consultant(RC):** 그래서 저는 웨이트를 즐기게 됐어요! 공중에서 제 힘으로 버틸 코어 근육이 매우 중요한 활동이기에, 그 지겹게 느껴지는 웨이트 운동의 참 의미를 깨닫게 됐거든요.

**김두형 Manager(DA3):** 맞아요, 저 역시도 평상시 운동을 더 열심히 하게 돼요. 사실 보기에는 단순 낙하로 보이지만, 단단한 코어가 뒷받침돼야 올바른 자세로 다이빙이 가능하다고요!

**박건희 Senior(IM4):** 그럼에도 가장 큰 장점은, 두근거리는 마음을 다잡고 뛰어내리는 순간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진다는 점인 것 같아요. 온몸

에 바람을 맞으면서 하늘을 날다 보면 스트레스가 제대로 풀린답니다.

**이다슬 Senior(IM4):** 그리고 극한의 공포를 마주하는 짜릿함 아닐까요? 비록 고소공포증이 있지만, 하늘에서 뛰어내리기 전의 공포심이 뛰어내린 후에는 스틸과 짜릿함으로 바뀌더라고요. 저처럼 고소공포증이 있다면, 이번 기회에 스카이다이빙으로 극복하면 어떠세요?

### # 윈드터널 넘어 리얼 스카이로!

**송태석 Manager(DA3):** 삼정인 여러분, 숨겨왔던 여러분들의 날개뼈, 이제 펼칠 때가 되었습니다. 날개뼈가 퇴화된 인간에게 유일하게 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우리 동호회와 함께해요.

**박균재 S.Consultant(MC1):** 공기로 이뤄진 바다에서 몸으로 서핑하는 느낌이랄까요? 혼자 하면 멀게 느껴지는 활동이지만, 동호회를 통해서 기초부터 차근차근 배울 수 있고, 함께 가면 용기가 생기니 망설이지 마세요.

**장서영 Associate(B&F1):** 집, 카페, 영화처럼 반복되는 휴식시간에서 벗어나고 싶고, 색다른 경험을 하고 싶다면 스카이다이빙 추천 드려요. 아는 사람 하나 없어도 걱정 마세요~! 모두가 친근하게 대해 주시니, 금방 적응할 수 있어요.

**신수련 Director(DA3):** 우리 동호회의 1차 목표는 앞으로도 꾸준히 교육을 진행해서 실내 연습장이 아닌 하늘에서 스카이다이빙을 실제로 할 수 있는 회원분들을 늘려가는 것이에요. 사전 교육을 수료한 인원이 충분히 모인다면, 실제 스카이다이빙 또한 연 1회 이상 진행할 계획입니다. 3월에 윈드터널 활동이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스카이다이빙 i-Fly 동호회 문의

DA3 신수련 Director (ssheen@kr.kpmg.com)  
 RC 이인혜 Director (inhyelee@kr.kpmg.com)  
 DA3 김두형 Manager (duhyungkim@kr.kpmg.com)



# 글로벌 파견자가 전하는 어드바이스 외국인 투자에 적극적인 나라, 체코

‘세계가 열린다’에서는 전 세계 KPMG Office에 파견 중인 현지 전문가를 통해 각국의 생생한 비즈니스 트렌드와 현지에서 주목하는 이슈, 경제 상황 등을 살펴본다. 이번 호에서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은 국가 중 하나인 체코에 대해 체코 Korea Desk 박상진 Director를 통해 체코의 현재 상황과 주목해야 할 이슈에 대해 들어본다.

글 체코 Korea Desk 박상진 Director E-mail sangjiinspark@kpmg.cz Tel +420 731 426 330



체코 Korea Desk 담당자들과 함께, 박상진 Director는 가운데 위치해 있다.



“체코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에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 # 경제적 안정성 & 높은 산업화 & 지리적 이점 갖춘 매력적인 투자처

체코는 서유럽과 동유럽을 잇는 곳으로, 대부분의 주요 유럽 비즈니스 센터와 접근성이 매우 좋다. 수도인 프라하는 대부분의 다른 유럽 수도에서 2시간 정도 비행 거리에 위치한다. 이와 함께 경제적 안정성, 높은 산업화의 이점을 누릴 수 있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매력적인 시장으로 여겨왔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타 유럽 국가 대비 유리한 비용 조건 및 제조, 연구 투자에 모두 개방적인 투자 환경은 체코 경제의 핵심 요소로 볼 수 있다. 이로 인해 동유럽 국가 중 외국인직접투자(FDI, Foreign Direct Investment) 측면에서 가장 성공적인 국가로 평가받았다. 또한, 유럽연합(EU),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및 국제기구의 회원 자격은 산업에 대한 기반을 제공함은 물론, 경제 정책은 일관되고 예측 가능하도록 뒷받침하고 있다.

무엇보다 체코는 외국인 투자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이에 투자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체코는 신규 및 기존 투자자에게 투자 프로젝트 관련 비용의 최대 25%를 지원하는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 이는 제조업 및 R&D센터의 투자 등에 해당되며, 10년간 법인세 감면,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직원 교육에 대한 현금보조, 설비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 대한 현금보조 등의 형태로 진행된다.

### # 경제생산량 증가, 민간투자 및 수출 시장 성장도 이뤄갈 전망

최근 체코 경제는 여러 압력에도 불구하고 좋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이슈는 지난해 경제 성장률 둔화를 일으킨 높은 인플레이션이다. 식품, 전력, 천연가스뿐만 아니라 다른 범주의 상품과 서비스도 최근 급격한 소비자 물가 상승에 기여하고 있다. 2022년과 2023년 각각 연평균 15.1%, 10.7%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기록했으며, 2024년에는 다소 감소한 2.4% 수준으로 추정된다.

반면 통화금리 정책 등 국가적인 조치에 기반해 2024년 경제생산량은 1.9%(2022년 2.4%, 2023년 -0.6%)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민간투자와 수출 시장의 성장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한, 2024년 체코 정부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대응하여 세율 인상 등 대대적인 정책 제정을 실시하고 있다. 반면, 체코는 유럽 자동차 생산의 기지 역할을 하고 있어 2024년부터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전기차 비즈니스로의 전환에 따른 여러 가지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체코, 에너지 시장 기회 있어

유럽의 에너지 시장은 특히 에너지 비용 상승과 러시아로부터 공급 중단 등의 사유로 지난해 큰 어려움을 겪었으나, 최근 여러 공급선의

확대로 정상 및 안정화됐다. 아울러 체코 내 Dukovany 원자력발전소 확장을 위한 입찰이 진행 중이며, 한국수력원자력이 유력한 입찰자로 논의되고 있다. 이로 인한 에너지부문의 파트너십 기회가 생길 수 있다. 또한 체코의 회계 및 세무 환경은 점차 국제표준 및 외국 인투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변화되고 있다. 지속적인 개혁을 통해 기업은 선호에 따라 현지 회계기준뿐만 아니라 국제회계기준(IFRS)을 적용할 수 있다. 아울러, 현지 통화(CZK)뿐만 아니라 USD, EUR, GBP로 회계를 관리하도록 변경됐으며, 현지 통화를 EUR로 변경하려는 논의가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한편, 인플레이션을 극복하기 위한 비용 및 급여 인상에도 불구하고 체코의 실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24년 실업률은 약 2.8%(2022년 2.2%, 2023년 2.6%) 수준으로 매우 낮은 수준이며, 이러한 노동 시장의 긴축은 임금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체코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기업은 사업 운영에 필요한 인력 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조달 방식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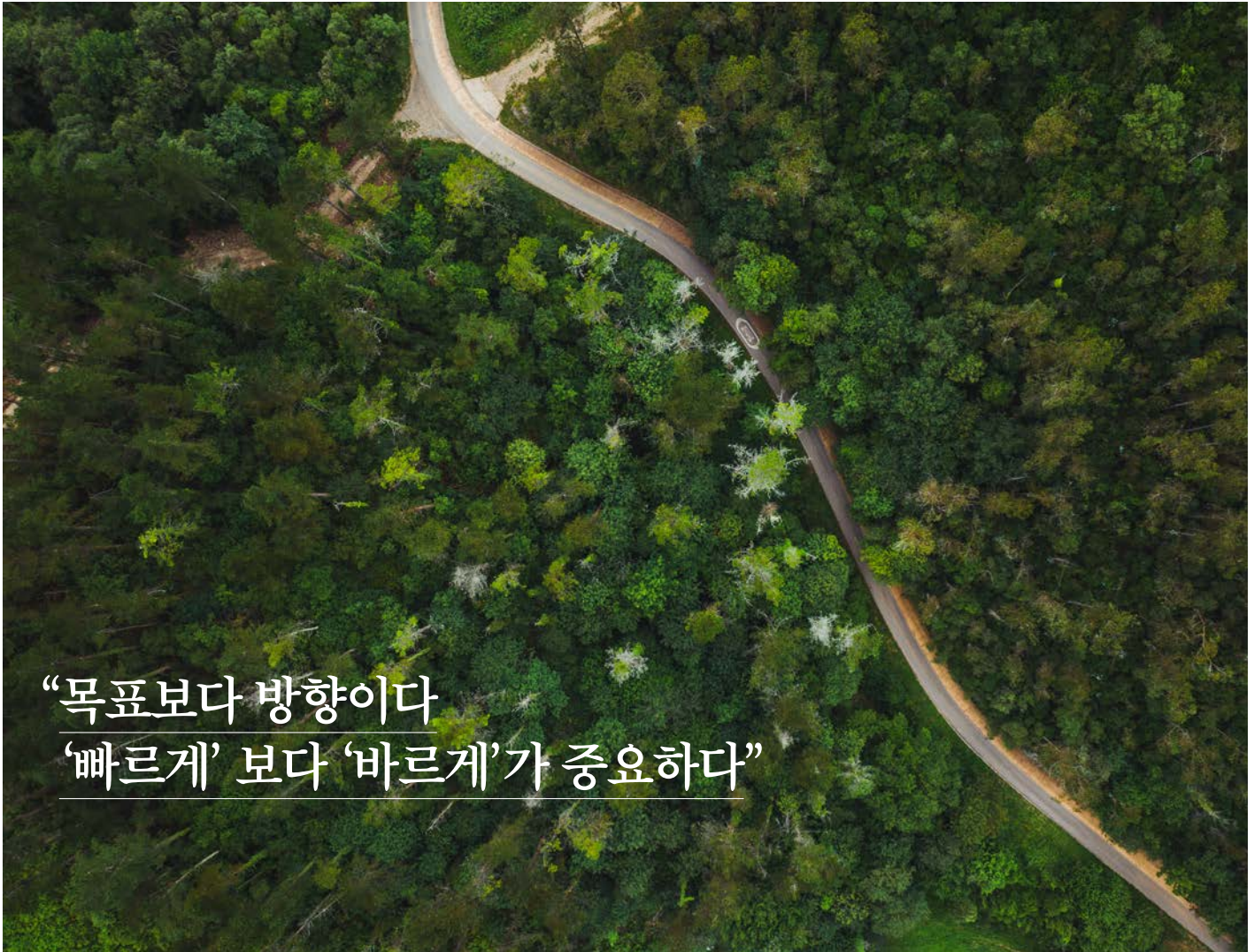
### 체코 Korea Desk

체코 Korea Desk는 2007년 개설된 이래로 한국 기업의 진출과 현지 운영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Audit, Tax, Legal Function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이 체코 사업 운영에 필요한 서포트를 제공하고 있다. Korea Desk는 유일한 한국인 창구로서 현지 한국 기업의 니즈를 파악하여 KPMG 프로페셔널을 연결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특히 기업에 필요한 모든 서비스(Audit, Tax, Legal)를 One-Stop으로 제공하는 것은 큰 장점이다. 앞으로도 체코에 진출한, 또는 이후 진출을 계획하는 한국 기업의 니즈를 적시에 파악하고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다.

KPMG 체코 건물 전경







“목표보다 방향이다  
‘빠르게’ 보다 ‘바르게’가 중요하다”

## 목표와 방향

광활한 사막을 가로지르는 그 험한 자동차 랠리에서 뜨거운 승부를 가를 핵심성공요소(CSF)는 무엇일까? 일단 사막 자동차 랠리에는 두 명이 함께 조를 이룬다. 한 사람은 운전대를 잡고 또 한 사람은 방향키를 잡는다. 여기서 운전자의 스킬보다 중요한 것이 ‘페이스노트(Pacenote)’이다. 이것은 코파일럿이 옆에서 읽어주는 사전 답사한 길 상태, 조건, 장애물 등을 상세히 적어 놓은 기록이다. 랠리에선 속도가 생명이지만, 방향을 제대로 모르고 앞으로 달려만 간다면 그건 바로 죽음이다. 프로 골퍼들도 하나같이 거리보단 방향이라고 말한다.

### # 빠르게 vs 바르게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다(Life is not speed but direction)”라는 것은 서양의 유명한 명언이다. 그러나 미국의 실존주의 심리학자, 롤로 메이(Rollo May)에 따르면, 인간은 길을 잃었을 때 더 빨리 뛰어나는 유일한 동물이라고 한다.

“우리는 빨리 가르치지 않고 바르게 가르칩니다.” 이것은 미국의 어느 목사님이 설교 시간에 소개한 한인 태권도장 앞에 걸린 플래카드다. 인생에선 역시 ‘빠르게’ 보다 ‘바르게’가 중요하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사례다. 이런 모든 일들이 가리키는 교훈은 단순하다. 그건 한마디로 방향이 틀리면 빨리 가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다.

### # 삶에 방향이 없다면?

삶에 방향이 없다는 건 그 자체로 재앙(災殃)이다. 영어의 '재앙(disaster)'이란 단어는 사라진다는 뜻의 'dis'와 별을 뜻하는 'aster'로 구성되어 있다. 어원상 '별(aster)'의 불길한 배치, 소멸을 뜻한다. 나침반이 없던 시절에 뱃사람들은 별을 보고 방향을 잡았는데, 짙은 구름이 끼거나 폭풍우가 오면 별이 사라져 방향을 잃게 되므로 그것을 재앙이라고 한 것이다. 한자로 보면 '재앙(災殃)'은 쉽게 말해 불난리와 물난리가 합쳐진 상태를 의미한다. 재앙에서 '양(殃)'자는 '하늘의 별'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다. 인생에서 운(運)이 길이라면 액(厄), 양(殃) 등은 웅덩이다.

그러나 주위를 둘러보면 남보다 못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그래도 자신은 인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다고 자위하면서 피 같은 시간을 써버리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리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어렵다. 속으론 이걸 아는데 하면서 살아가다 보면 중국에는 후회하기 십상이다.

### # 목표가 많다는 것은 방향이 없는 것

오늘날 성과지상주의에 내몰린 대부분 직장인들은 목표 달성이 지상과제다. 바람직한 기업의 과학적인 계기비행을 위해 구체적인 목표 설정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전략목표, 경영목표, 사업목표, 본부목표, 세부목표 등등 유사한 이름의 목표들이 칼춤을 추게 되면 조직은 유령이 지배하는 세상이 된다. 게다가 시도 때도 없이 벌어지는 각종 KPI 성과평가는 이들에게 방향이란 건 생각할 틈조차 주지 않는다.



실제 경영평가를 해보면 실사 현장에서 자신의 속한 조직의 목표를 알고 있는 직원은 놀랍게도 거의 없는 것이 현실이다. 기업의 비전과 핵심가치(core values) 또한 그 공유(sharing) 정도가 중요한데 이것 역시 상황은 마찬가지다. 경영에서 권한위임과 투명한 정보공유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주는 대목이다. 결국 조직 내 목표가 많다는 것은 방향이 없는 것이다. 이걸 제대로 잡아주는 게 리더십이다. 중국의 마윈 회장

은 목표는 3개 이내로 정해야 한다고 충고하고 있다.

제 길을 찾기 위해선 일단 방향을 제대로 잡아야 하는 게 근본 이치다. 방향은 인생의 핸들이자 나침반이다. 일단 북쪽으로 간 사람은 남쪽으로 돌아가기는 거의 틀렸다고 보면 된다. 목표는 바꿀 수 있고, 또 바꾸어야 하는 거지만 방향은 다르다. 역시 목표보다 방향이다.

## ▶▶ 저자 소개



**이동규 교수**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이 교수는 국내 정상급 경영평가 전문가로 최근 출시한 베스트셀러 『생각의 지문(Thinkprint)』 저자이자 초대형 교보 광화문글판 선정 작가다. 현재 조선일보 고정 칼럼니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두줄칼럼」은 삶과 일에 대한 근본원리를 비롯하여 경영 각 분야에 대한 인사이트, 아이디어 및 최신 트렌드 등을 언어의 쇼츠 형식으로 풀어낸 독창적인 초미니칼럼이다. 내용은 주로 인문·경영의 융복합 구성이며, AI 시대 인간만의 생각품질을 높이고 영감을 주는 지적 아포리즘 결정체다.



## 답답하고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는 회피의 진짜 얼굴 갈등을 다룰 용기가 있는 회피를 위해

복잡한 문제, 부딪히면 썩끄러운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이 문제를 꺼내어 이야기하는 순간 다룰 것만 같은 느낌. 일상은 우리가 피하고 싶은 일들로 가득 차 있다. 이런 일을 그저 피하기만 하는 것이 맞을까? 또한, 다른 일은 매사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해결하는 사람이 가족 문제에 있어서는 유독 회피적인 모습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보면 볼수록 모호한 회피에 대해 알아보자.

“반사적으로 회피하는 자신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이 회피의 불건강한 요소를 제거하는 확실한 방법이다.”



우리나라 사회문화에 개인주의 성향이 새로이 자리 잡고, 일부 문화 콘텐츠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원하는 점을 낱낱이 밝히는 것을 '쿨하지 못하다'라고 여기는 등 정서적 무심함, 무덤덤함을 선호하는 현상이 생겼다. 문제에 굳이 일일이 대응하며 아파하지 말 것, 설령 그러하더라도 안 드러내는 것이 좋다는 맥락이다. 이는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문화와 맞물려 일상과 관계 전반에서 회피라는 핵심어로 등장하고 있다. 최근에는 정신건강 측면에서 유리하지 않은 회피 행동들을 회피적 인간, 회피적 애착 유형 등의 용어로 회피 행동들을 설명하곤 하는데, 일상에서 가장 흔한 회피 두 가지를 정리해 본다.

### # 회피동기가 강한 회피주의자

무엇인가를 획득, 성취하면서 기쁨을 느끼는 접근동기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고, 부정적인 상태를 만들지 않음으로써 마음의 평화를 찾는 회피동기 행복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 보통은 접근동기 행복을 더 주도적이고 발전적인 행복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고 해서 회피주의자의 행복이 가짜 행복인 것은 아니다. 오늘 하루 아무 마음에 걸리는 것 없이 잘 보낸 것에 안도하는 것, 큰 문제가 될 법한 작은 문제를 불씨 단계에서 꺼 버리는 행위에서 느끼는 만족감이 커서 회피주의자들은 소소한 것에서 행복을 느끼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상이나 업무, 관계에서 새로이 하기보다는 괴로운 것으로 예상되는 것들을 미리 차단하거나 끊는 일이 많으니 자칫 부정적인 에너지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마음의 평화를 위한 차단만 하다 보면 성장은 언제 하는지?'라는 의문이 늘 마음 한 켠에 자리 잡고 있다.

### # 가까운 관계에서 감정적 연결보다는 독립성을 중시하는 회피적 애착유형

성장 과정에서 맺는 애착 관계에서 회피적 유형을 형성한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 남에게 의존, 의지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강해 자신의 독립성을 과장되게 생각하고 이를 합리화하는 경우가 많다. (예: "어렸을 때 나 혼자서 알아서 해야 하는 것들이 많았는데 그 덕분에 이렇

게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 있었다"는 생각) 회피적 애착유형인 사람들의 두드러진 특성은 '나는 문제없어'라는 태도가 확고하고 가까운 사람들의 솔직한 감정표현을 꺼려한다. 가까운 사람들의 감정표현은 '당신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혹은 '나 지금 당신에게 불만이 있어요'라는 메시지를 담은 경우가 많은데 그 어느 것도 회피적 애착유형에게는 달갑지 않기 때문이다.

### # 회피주의자가 아닌데 관계에서만 회피적일 수도 있나요?

회피주의자는 생활 전반에서 회피동기가 우세하는 것이라면, 회피적 애착유형인 경우에는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의 갈등에 대해서 회피적이다. 회피주의자 중에 회피적 애착유형이 많을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회피주의자가 회피적 애착유형인 것은 아니고, 회피적 애착유형 중에서도 오히려 회피주의자와 거리가 먼 경우도 많다. 성취나 업무는 잃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불도저처럼 과감함을 과시하는 분이 친밀한 관계에서는 갈등을 피하고 입을 꼭 다물어 버리는 경우가 생각보다 굉장히 흔하다.

사람이 회피를 하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째, 갈등에 직접 부딪혔을 때 에너지 소모가 너무 크기 때문이다. 둘째, 다치지 않으면서 건설적으로 갈등을 해결해 본 경험이 충분치 않기 때문이다. 회피적으로 대처하는 습관으로 인해 우려되거나 혹은 주변으로부터 원성 어린 말을 들은 적이 있는가? 반사적으로 회피하는 자신을 자각하고 인정하는 것이야말로 회피의 불건강한 요소를 제거하는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첫걸음이다.



Profile  
최은영  
임상심리전문가 & 정신건강임상심리사

기업과 사람의 정신건강을 위해 마음으로 다가가는 기업정신건강 힐링멘토. 연세대학교에서 심리학을 전공하고 동대학원에서 임상심리학을 공부했다. 강남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임상심리레지던트 과정을 마치고 그 직후에는 심리진단, 평가 영역에서 경력을 쌓았다. 기업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업무뿐 아니라 다양한 심리적 문제들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주로 기업 내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현장에서 발로 뛰어왔다. 다수 대기업, 공공기관, 외국계기업에서 상담, 위기개입, 교육을 진행했고, 근로자를 위한 정신건강 관련 글을 썼다. 현재 강북삼성병원 기업정신건강연구소 전임상담사로, 'CIM Care Program'에 참여해 삼성KPMG 구성원들의 스트레스 관리 및 마음치유를 위한 상담을 진행 중이다.



# SAMJONG NEWS

## 신임 감사부문 대표에 변영훈 부대표 임명



감사부문 대표 변영훈 부대표

삼성KPMG가 오는 4월 1일부터 새 감사부문 대표에 변영훈 부대표를 임명했다. 변 부대표는 1995년부터 KPMG에 입사해 제조 및 건설, 제약·바이오 등 다양한 산업의 감사 경력을 두루 거친 '감사통'이다. 특히, 변 부대표는 KPMG 미국의 뉴욕 오피스, 세인트 루이스 오피스 파견 근무와 KPMG 글로벌의 IFRS 토타팀에도 참여한 경험이 있는 등 국제적 감각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품질관리실에서 감사품질 개선을 위한 제도 및 절차에 이르기까지 감사품질 전반에 걸친 폭 넓은 역할도 수행했다. 회계투명성을 높인 공로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수상했다.

삼성KPMG 김교태 회장은 "앞으로도 감사환경 변화에 한발 앞서 AI(인공지능)를 활용한 디지털 회계감사와 산업별 특화된 전문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성장과 지속가능한 가치를 제시하는 신뢰받는 조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기업 세무담당자 대상으로 '2024 개정세법 설명회' 개최



삼성KPMG가 지난 2월 22일 기업 세무담당자 약 1,500여 명을 대상으로 '2024년도 개정세법 설명회'를 웨비나(Webinar)로 개최했다. 올해 시행되는 개정세법에는 ▲가업상속공제·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특례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등에서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세제 개편이 포함됐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삼성KPMG의 조세전문가들이 발표자로 나서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 및 소득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지방세법 등 5개 세션에서 개정배경 및 입법취지와 함께 세목별 주요 개정내용을 설명했다.

\*Contact: Tax 이재호 부대표 jlee315@kr.kpmg.com

## 삼정KPMG-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VVIP 고객 대상 서비스 지원

지난 2월 27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삼정KPMG와 삼성생명이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이는 패밀리오피스의 VVIP 고객을 위한 서비스 지원을 위한 협약으로, 삼정KPMG는 이 협약을 통해 패밀리오피스 기업 고객에게 ▲기업 경영 및 기업가치평가 자문 ▲기업 M&A 및 기업승계 관련 자문 등 차별화된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나갈 계획이다.

한편, 삼정KPMG 재무자문부 김이동 대표는 “국내 중소·중견기업 창업자의 은퇴시기 도래 및 기업상속에 대한 상속증여세율 이슈 등으로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M&A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이번 양사 협력을 통해 삼성생명 패밀리오피스 VVIP 고객의 기업 가치를 올리는 성장 전략 파트너로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머니투데이 IB대상에서 '최우수 회계자문상' 수상



삼정KPMG가 지난 2월 20일 머니투데이 주최한 '제21회 대한민국 IB대상'에서 최우수 회계자문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지난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 빅딜(대형 계약) 등 조(兆) 단위 거래에서 회계 자문을 수행한 삼정KPMG는 조력자의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아울러 국내 주요 대기업과 대형 PE(사모펀드)의 거래 종결에 기여하며 회계자문사로서 역량을 입증했다.

## FY23 Tax 직무교육 우수참여자 시상식 개최

삼정KPMG는 지난 2월 29일, 'FY23 Tax 직무교육 우수참여자 시상식'을 개최했다. FY23 기간 Tax본부 전문가들은 Tax 프로페셔널로서 능력을 기르고 전문성을 갖추기 위해 선배들의 생생한 업무 노하우와 꿀팁을 전수받는 등 다양한 직무교육에 참가했다. 삼정KPMG는 모든 교육에 열정적으로 참여한 총 21명의 우수참여자들을 선정해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시상식 현장에서 우수참여자들은 Tax부문의 유학섭 대표의 시상으로 상패를 수여받았으며, 상패와 함께 삼정KPMG Tax 일잘러 우수자 1기 로고가 새겨진 시상품을 선물로 받았다.



- Tax1본부**  
김영태 S.Manager, 유정영 S.Manager, 이원희 S.Manager, 이창희 Director
- Tax2본부**  
김슬해 Associate, 유제민 Associate, 김규한 Senior, 황보영 Senior, 정아영 S.Senior, 김동엽 Manager, 전성탁 Director, 정하석 Director
- Tax4본부**  
남성진 Associate, 황태원 S.Senior, 한윤정 Manager, 노재균 S.Manager, 조원빈 Director, 홍주표 Director
- Tax5본부**  
김다영 Associate, 이선재 Associate, 채예진 Associate



# '유럽 ESG 정보공시 대응 세미나' 개최 온-오프라인 동시 진행 ... 1,200여 명 참석해



### CSRD 주요 현황 요약

**적용 시점**

- EU 대기입: 2024
- 기타 EU 대기입: 2025
- 일부 상장 중소기업: 2026
- EU에 지회사를 둔 한국 모기업: 2028

**보고범위에 포함되는 EU 기업 수**

20% 증가

11... NFRD (FY 2023) → ... CSRD (FY 2024)

**CSRD**

- 12개의 신규 유럽 지속가능성 보고 기준 (ESRS) 발표. 2025년에 추가 발표 예정
- 경영보고서 (Management Report)의 일부별로 공시
- 제한적 인증 (limited assurance) 수평
- 후속 업데이트 인용으로 강화 예정
- 이중대상 평가 의무화

**적용 요건**

- EU PIEs (Public Interest Entities)
- 모든 EU 내 기업 (Non-EU 모기업/본사의 현지법인 포함)

내(같은) 이해 요건 중 2개 이상을 충족하는 경우만 해당

- 상장액 250억 유로 (연간 평균)
- 순매출 5,000만 유로 초과
- 자산총액 2,500만 유로 초과
- 상장 중소기업인 2025년부터 적용됨 (중대적용 포함)

**EU 기업 보고 의무**

ESG 인증  
ESG 자문

한국기업 EU 현지법인 대부분은 CSRD 적용 대상

적용대상 유럽기업 수: 50,000

EU 이외에 본사를 둔 기업 중 영향 받는 기업 개수: 10,000개

공급망 내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

**EU 기업 검증 의무**

감사 고객  
비감사 고객

### 공시 전략 결정 시 고려 사항

<b>역외 모기업의 CSRD 준비도 분석 단계</b>	<p><b>01</b> 기존 구조 활용 재무 또는 비재무 공시와 관련된 통합 프로젝트, 절차 및 데이터 시스템이 이미 구현되어 있는가?</p>
<b>그룹 구조 분석</b>	<p><b>02</b> 자원 확보 역량 확충 핵심 (자회사) 수준에서 공시 및 사내지 회계를 창출하는 데 필요한 자원, 역량 및 경험을 갖춘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p>
<b>공시 옵션 및 현재 사항 평가</b>	<p><b>03</b> 규제 요건 충족 역외 규제 요건을 충족하고 시장별 기본 프레임워크를 조직 내 수준에 맞게 조정할 수 있는가?</p>
<b>공시 옵션 선택 및 이해관계자 참여</b>	<p><b>04</b> 이해관계자가 바라보는 기업의 모습 이해 고객, 주주 및 기타 이해관계자가 회사를 연결 실제 전체로 인식하는가 아니면 특정 자회사, 사업 및 지역관리를 핵심으로 인식하고 있는가?</p>
<b>공시 체계 구축</b>	<p><b>05</b> 기업 전략과의 연계 기존 공시 수준이 조직의 ESG 전략, 향후 전략적 의사결정 프로세스 및 기후변화 대응 목표 조율을 지원하고 있는가?</p>
	<p><b>06</b> 투자 결정 전략적인 중장기 투자 결정은 어떤 수준에서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는가? 또한 조직 내 반응이 이러한 결정과 조화로운가?</p>

삼정KPMG가 지난 2월 21일 광화문 포시즌스호텔에서 '유럽 ESG 정보공시 대응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고태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기업에게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촉박하게 다가온 ESG 정보공시 의무화"라며 "우리나라 기업도 ESG 정보공시 대응을 위한 실질적 체계 구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삼정KPMG는 이번 세미나를 통해 우리나라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에 기여하고, 신뢰받는 비즈니스 파트너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EU 기업의 CSRD 등 ESG 정보공시 도입 사례와 도입 과정에서 이슈를 확인하고, ESG 공시 조직의 운영 노하우를 살펴봤다. 또한 EU 정보공시 규제 동향과 함께 미국과 일본 등 유럽 진출 해외 기업의

ESG 정보공시 대응 사례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 # 한국 기업 역시 CSRD 대응 준비해야

세미나의 첫 번째 세션은 삼정KPMG 황정환 상무가 글로벌 ESG 공시 규제의 동향 및 시사점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황 상무는 "비즈니스 측면에서 우리 기업은 어느 유럽 기업의 또 다른 회사의 공급망이 될 수 있고, 또 공급망 안에 들어오면 CSRD의 보고 범위가 가치사슬 안에 들어 있기 때문에 CSRD에 요구되는 정보를 요청받을 수 있다. 따라서, 우리 기업도 대응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황 상무는 "국내 기업은 현재 공시에 대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다"며 "2025년부터 CSRD를 한국 기업에 적용하면 2024년 말까지는 정보 생성 과정을 완성해야 하지만, 해외 유럽 사례를 보

면 보통 프로젝트를 이행하는 데 18개월 정도 소요된다”라고 짚었다. 그는 “KSSB(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가 수립 중인 한국형 ESG공시 기준)가 2026년에 적용이 된다고 하면 매우 보수적으로 봐도 내년 말까지는 (정보 구축 등 공시 준비) 완료해야 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 CSRD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는 전사적 지원 필요**

KPMG 글로벌 ESG 공시 서비스 헤드(Head)인 얀 헨드릭 그넨디거(Jan-Hendrik Gnaendiger)는 CSRD 최신 동향 및 실무 이슈를 전했다. CSRD의 EU 국가별 법제화 진행 경과 및 통합 공시 등 주요 실무 이슈 분석을 통해 한국 기업의 CSRD 대응 전략 수립을 제시했다. 그넨디거 파트너는 “그룹 사나 자회사에서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없다”며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 만큼이나 CSRD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에 있어 전사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회 차원에서 ESG 공시에 대해 누가 책임을 가질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명확하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라고 덧붙였다.

**# 한국 기업도 CSDDD 영향 받을 수 있어**

KPMG 독일 ESG 담당 파트너인 록사나 메슈케(Roxana Meschke)는 CSDDD(유럽공급망실사법)의 최신 동향을 통해 한국 기업에 미칠 영향과

대응전략을 알아봤다. 메슈케 파트너는 “한국 기업이 EU 내에서 비즈니스를 하지 않는다 해도 EU에 있는 기업에 제품이나, 상품을 제공하는 경우 그 해당 EU 기업의 공급망 중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된다”며 “유럽공급망실사법(CSDDD)에 따라 한국 기업도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그넨디거 파트너와 록사나 파트너가 ESG 공시 대응 전반의 ‘EU 케이스 스터디(Case Study)’ 내용을 공유했다. 유럽 상장사 및 주요 해외기업의 CSRD 도입 준비 과정과 거버넌스 구축 사례를 공유함으로써 한국 기업의 시사점을 제공했다.

한편, 삼성KPMG ESG비즈니스그룹 리더인 이동석 부대표는 “공시 의무화에 따른 늘어남 공시 정보와 요구 정합도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 본사 차원의 공시 전략 수립이 필수적인 상황”이라며 “세미나를 통해 유럽 상장사의 CSRD 도입 사례 및 이슈를 사전 확인하여 한국 기업의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Contact: ESG비즈니스그룹 리더 이동석 부대표 dongseoklee@kr.kpmg.com





## '2024 KPMG 아이디어톤' 개최 ... 생성형 AI 모델 활용 주제로 진행 AI 활용해 다국적 정보 통합 검색 시스템 선보인 선문대 Bunch팀 우승

지난 2월 20~21일 양일간 열린 '2024 KPMG 아이디어톤(Ideathon)'에서 Bunch팀(선문대)이 우승의 영예를 안았다. 'KPMG 아이디어톤'은 KPMG 글로벌이 주관하는 KPMG Ideation Challenge(KIC)의 한국 대회로, 매년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5회째이다. 올해는 '생성형 AI 모델을 활용한 기업업무 자동화 및 생산성 향상'을 주제로 개최됐다. 역대 최대 참가자인 총 64개 팀 313명이 지원했으며, 서류 심사에 통과한 11개 팀 58명의 학생들이 모여 아이디어 경쟁을 벌였다. 참가자들은 지난 1월부터 약 한 달 간 프로그래밍 등 아이디어의 프로토타입(Prototype)을 개발하는 시간을 가진 후 2월 20~21일 양일간 팀 별로 구체화한 아이디어를 발표했다.

선문대학교 김수화, 박정윤, 우에노고홍, 이동욱, 이상용, 최준혁 학생으로 구성된 Bunch팀은 AI를 활용해 다국적 정보 통합 검색 시스템 비스토(VISTO)를 선보여 우승을 차지했다. 연세대 빅데이터 학회 인원으로 구성된 와이빅타팀(연세대)은 새로운 팀원으로 대회에 참여 올인원(All-In-One) 특허 출원 보조 서비스 파파(PAPA)를 개발해 준우승을 거머쥘었다. 3등은 한 문서를 여러 명이 동시에 협력하여 완성시킴으로써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는 도큐플로우(Docuflow) 솔루션을 내놓은 OPTIMA팀(광주과학기술원)에 수상의 영예가 돌아갔다.

한편, 우승팀에는 1천만 원의 상금과 함께 삼정KPMG 라이트하우스의 인턴십 기회가 주어진다. 준우승팀과 3등팀에는 5백만 원과 3백만 원이 차등 수여된다. 국내 결선 참가자 전원은 대회참가확인서를 제공받는다.



2024 KPMG 아이디어톤 수상팀 미니 인터뷰

우승 'Bunch'팀 (최준혁, 김수화, 박정윤, 우에노고홍, 이동욱, 이상용 학생)



기업에서 개최하는 만큼 실무적 요소를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아이디어 발굴 단계에서 많은 회의를 거쳤다. 설명회부터 API(응용 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서버 지원 등 타 대회와 달리 체계적인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는 점이 좋았고, 직접 서버를 구현하고 실행하며 앞으로 AI 관련 진로를 결정하는데 있어 큰 자양분이 되었다.

- 최준혁 학생(선문대 컴퓨터공학과)



준우승 '와이빅타'팀 (김지수, 양진성, 성현준, 이우홍, 김채연, 정지원 학생)

기업 업무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해야 했기에, 기업의 애로사항을 파악하는 데 초반에 어려움이 컸다. 사업성 측면까지도 고려해야 해 주제 선정에 가장 큰 시간을 쏟았다. 대회를 통해 기획부터 프로토타입을 구현해볼 수 있어 좋았고, 제품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특히 얻어갈 수 있는 것이 많았다. IT 프로젝트 기획 관련으로 진로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번 대회를 통해 크게 성장할 수 있었다.

- 김지수 학생(연세대 교육학과)



준준우승 'OPTIMA'팀 (최익준, 박주명, 박시원, 고도현, 황인선 학생)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 기술적으로 어려웠던 부분을 팀원들과 밤을 새 가며 해결하려고 했던 시간들이 기억에 남는다. 기획안을 구현해볼 수 있는 기회를 주는 대회는 흔하지 않는데, 팀의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발표하는 것에서 나아가 실제로 구현해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기 때문에 팀원들에게도 대회 참여를 적극 추천하게 되었다.

- 최익준 학생  
(광주과학기술원 전기전자컴퓨터공학부)





55<sup>th</sup> Anniversary

# People First Concert

2024년 5월 16일 목요일 오후 6시  
올림픽공원 KSPPO DOME

\*티켓부스오픈 - 오후 3시, 공연장 입장 - 오후 5시~



'Channel' 구독 정보 변경/ 신규 구독/ 구독 취소 안내

주소가 변경되었거나, 신규 구독을 원하는 분, 또는 수신을 원치 않는 분께서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변경 정보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과 전화로도 이용 가능합니다.

E-mail: [kr-fmchannel@kr.kpmg.com](mailto:kr-fmchannel@kr.kpmg.com) Tel: 02-2112-7567

The information contained herein is of a general nature and is not intended to address the circumstances of any particular individual or entity. Although we endeavor to provide accurate and timely information, there can be no guarantee that such information is accurate as of the date it is received or that it will continue to be accurate in the future. No one should act on such information without appropriate professional advice after a thorough examination of the particular situ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

The KPMG name and logo are trademarks used under license by the independent member firms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 2024 KPMG Samjong Accounting Corp., a Korea Limited Liability Company and a member firm of the KPMG global organization of independent member firms affiliated with KPMG International Limited, a private English company limited by guarantee. All rights reserved.